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독서문화 확산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독서캠페인 전개

환경·안전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해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일원화

도시정원 보조금 정책 시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	〈유럽〉
미국 시카고강기향 올랜도박혜진 하와이임지연 휴스턴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장지훈 토론토고한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홍성아 인도 뉴델리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박재현 중국 광저우손지현 베이징정민욱 충칭모종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장한빛 독일 베를린홍남명 프랑크푸르트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진광선 이탈리아 로마서동화 피렌체김예름 프랑스 파리김나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한울		

독서문화 확산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독서캠페인 전개

인도 델리 NCT¹⁾ / 행재정·교육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낮아진 문해율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독서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캠페인 기간에는 학교에서 독서 시간을 별도 배정하고 독서 토론 등을 진행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정책적 배경

- 인도의 2021년 기준 문맹률은 전 세계 평균 문맹률 대비 2배 수준에 해당하는 26%로, 전반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코로나19 봉쇄령에 따른 2년 동안의 비대면 교육으로 청소년 기초교육 제공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
 - 최근 청소년들은 책보다는 인터넷, 모바일 게임 등 스마트폰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읽기 및 문해 능력이 악화되고 있음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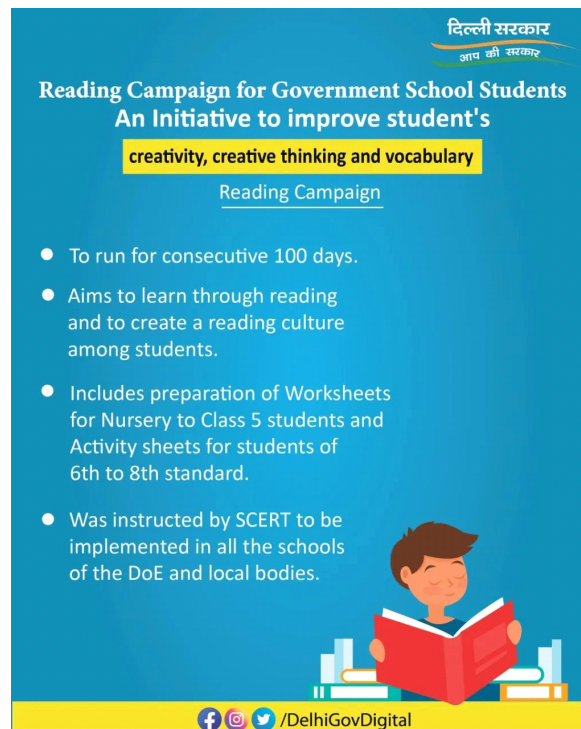
- 델리 NCT 정부는 2022년 11월에 지역 공립학교의 6학년~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습관 배양과 언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캠페인을 진행
 - 인도의 어린이날(Children's Day)인 11월 14일부터 월말까지 교내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형태로, 학교의 교실 단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
- 교육 과정에 매주 두 시간 정도를 독서 활동 시간으로 배정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책을 읽는 활동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읽은 책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하며 학생들 간에 생각과 의견을 공유
 - 특히 첫 번째 시간에는 문해력이 크게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두 번째 시간에는 독서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함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 독서캠페인은 지역 아동의 기초 학습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범학교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에는 100일 동안의 독서캠페인 ‘책을 읽는 인도(Padhe Bharat)’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독서캠페인을 진행하며 아동 문해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학년 중심으로 학습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읽기를 포함한 기초교육 보완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독서 활동은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정책 평가

- 독서 진흥 정책의 하나로 교육기관 내에서 별도의 캠페인 기간을 정해 지역 청소년들의 책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가며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도움을 줌
- 독서 시간 확대를 통해 개별 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켜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독서캠페인 홍보안내문 (출처: 델리 NCT 정부)

<https://www.government.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ducation/delhi-govt-schools-start-100-day-reading-campaign-as-part-of-padhe-bharat/89012667>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delhi-100-day-remote-reading-programme-begins-in-schools-7731428/>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for-delhi-govt-school-students-up-to-class-viii-reduced-syllabus-in-the-works-7956223/>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reading-project-delhi-govt-school-middle-graders-8253896/>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pcrs-campaign-boosts-literacy-levels-in-childcare-institutes/article65476059.ec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govt-schools-start-100-day-reading-campaign/articleshow/89004649.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해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일원화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에드먼턴市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시설인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을 관내 거점별로 운영. 이를 통해 생활 쓰레기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가정에서 처치가 곤란한 대형 및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자원의 일부를 재순환시키고 재활용 관련 교육도 제공

에코스테이션 설립의 취지

- 개인 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형 폐기물의 배출 빈도가 높은 캐나다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대형 및 화학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택가의 주요 거점에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폐기물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자원의 재사용 및 재순환 기능도 맡아 반입된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 등으로 다시 사용해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에코스테이션 운영 세부 내용

- 일반적으로 市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인 쓰레기 방문 수거 시 부피로 인해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임
- 처리 가능 품목
 -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전자 폐기물) 무료 폐기 가능(냉매 제거가 필요한 품목은 20달러를 부담해야 함)
 - 가정용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자동차 배터리, 폐윤활유, 접착제, 페인트(최대 용기 크기 20L) 무료 폐기 가능
 - 자전거, 철근, 서류 캐비닛, 배관 설비 등 대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고철류 무료 폐기 가능
 - 스티로폼과 타이어 무료 배출 가능
 - 부피가 큰 품목 및 가구는 요금을 부과. 품목별 10달러에서 20달러 부과
 - 혼합 폐기물은 중량으로 수수료를 부과
 - 소규모 리노베이션 폐기물, 흙, 잔디, 자갈, 목재, 외장재, 울타리 및 기타 혼합 폐기물

- 무료 퇴비 서비스
 - 수거된 나무, 음식물 쓰레기 등을 혼합해 고품질 퇴비를 만들고 시민들이 텃밭 가꾸기나 나무 심기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갖춘
- 무료 뿌리덮개(Mulch) 서비스
 - 수거된 나무를 이용해 ‘뿌리덮개’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
 - 뿌리덮개는 나무뿌리 부분 위쪽을 덮어 수분을 보전하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겨울철 모래 서비스
 - 눈이 잦은 지역 특성상 제설을 위한 모래를 무료 제공하여 눈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페인트 교환
 - 남은 페인트를 가져와 다른 사람이 기부한 다른 색의 페인트로 교환해 가는 서비스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도장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 바늘, 주사기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처리
- 대형 쓰레기 처리(Big Bin Event)
 -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중 에코스테이션까지 먼 거리 운송이 쉽지 않은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대형 쓰레기통(Big bin)을 탑재한 트럭이 마을 거점까지 찾아가 수거하는 서비스
 - 에코스테이션 방문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빅빈 이벤트 시에는 무료로 배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물품
 - 길가에서 픽업하기에는 큰 소파, 의자, 매트리스 및 기타 가구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
 - 컴퓨터, 텔레비전 및 기타 가전제품
 - 타이어 및 고철
- 웨이스트 와이즈(Waste Wise) 앱 서비스
 - 주민을 위한 에드먼턴市の 폐기물 관리 앱으로, 분류 지침, 수거 일정 알람 등의 서비스를 14개 언어로 제공



[사진] 무료 퇴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퇴비를 가져가는 모습

(출처: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garbage_waste/free-compost)

○ 재사용 센터(Reuse Center) 운영

- 재사용 센터는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조직과 개인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 자원센터로, 에코스테이션과 연계된 시설임
- 기부받는 품목은 예술 및 공예용품, 뜨개질 용품, 문구류, 장식품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재활용의 이점에 관한 교육, 기부받은 물품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에코스테이션 운영의 의의 및 평가

- 대형 물품 무료 수집소를 가까운 곳에 설치해 불법 폐기를 방지하는 효과
- 가전제품 재활용, 페인트 교환 등 재생 기능을 통합하고 환경 및 재활용 교육 기능도 추가해,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자원 순환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garbage_waste/reuse-centre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garbage_waste/eco-station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도시정원 보조금 정책 시행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 환경·안전

독일 슈투트가르트市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유용작물을 심는 도시정원 조성,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1차 프로젝트를 시행

정책의 취지와 목적

- 도시에 녹색공간을 늘려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촉진
- 도심에서 과일과 채소 재배, 건강식품 섭취
- 휴식, 학습, 다문화, 세대 간 대화, 이웃 간 교류 공간 제공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

- 보조금 신청 대상: 3인 이상 공동 프로젝트
- 보조금 규모(경비 총액의 최대 70% 지원)
 - 도시정원 설치 첫해: 최대 4천 유로
 - 3,000유로: 도시텃밭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 구입비(예: 정원용 흙, 씨앗, 모종, 건축자재 등), 인건비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용 처리(예: 수로 연결, 땅 정리 등)
 - 1,000유로: 부대장비 구입비(연장, 정원 의자 등)
 - 市 당국의 요구로 도시정원 장소를 옮길 경우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 도시정원 유지 보조금: 통상 최대 1,000유로
 - 사회적, 생태학적 효율이 높아 지역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최대 2,000유로 지원. 다음 중 최소 3개 요건을 충족하고,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정기적인 개방 시간이 있거나 상시 개방하는 경우
 - 정원 실사용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친환경 최소 기준 외에 유익한 추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예: 양봉, 토양오염이

없는 친환경 유기농 거름, 친환경 인증 종자와 모종 사용, 테라 프레타(Terra Preta, ‘검은 흙’. 농업에 적당하지 않다는 열대에서도 수확을 보장하고, 호우와 강한 태양 아래에서도 땅심의 회복력이 뛰어나 오늘날 지속적인 농업에 사용되고 있음) 투입 등 토질 개선 대책 시행)

-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유치원, 학교, 그 외 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정원을 활용하는 경우

- 개별 도시정원 크기: 20~2,000㎡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차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정원 프로젝트 보조금 정책 관련 실무 담당자와 정책 결정권자 대상 교육을 진행

도시정원의 사회적 효용 및 정책 평가

- 도시정원을 가꾸는 지역주민 간 대화, 교류, 협력 등 활성화
- 도시개발지역, 지역공동체 시설, 학교,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 정원으로 활용(예: ‘뒷마당 정원공동체’)
- 정원 가꾸기 행사, 문화 행사 등을 열어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

<https://www.stuttgart.de/leben/stadtentwicklung/stadtplanung/stadterneuerung/foerderprogramme-urbanes-gruen.php#foerderprogramm-urbane-gaerten>
www.stefanieruf.de/urban-gardening/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43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